

미래에셋운용, 반도체 커버드콜 ETF 출격... 인컴 투자 새판

반도체주 투자·커버드콜 전략 결합
삼전·하이닉스 콜옵션 직접 매도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전략 조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과 월 단위 현금흐름을 결합한 ETF를 선보이며 투자 전략 확장에 나섰다. AI 확산으로 구조적 성장 기대가 커지는 반도체 업종에 인컴 전략을 접목한 상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정의현 본부장은 20일 웹세미나를 통해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는 국내 주식의 개별 종목 옵션을 활용한 첫 커버드콜 ETF”라고 밝혔다. 해당 ETF는 21일 상장 예정이다.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해 성장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반도체 커버드콜 ETF

상품명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
상품 특징	'국내 반도체 TOP10' 투자 + 개별주식 옵션 활용 '월배당'

코스피200의 핵심성장 동력 '반도체'

2026년 코스피내 반도체 순이익 비중은 50% 이상
반도체는 국내 증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

개별주식 옵션을 활용한 액티브 커버드콜 전략

개별 주식 옵션을 활용해 높은 프리미엄을 추구하며 시장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커버드콜 비중 조절

옵션 프리미엄으로 완성하는 비과세 현금흐름

분배금 재원인 '옵션 프리미엄'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효과 가능

자료/미래에셋자산운용

시장 환경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점도 특징이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상승이 기대되는 국면에서는 옵션 매도를 줄여 주가 상승을 최대한 반영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매도 비중을 높여 프리미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상품의 가장 큰

의미는 국내 주식 개별 종목 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데 있다”며 “기존 국내 커버드콜 ETF들은 코스피200 지수 옵션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에 머물렀지만, 이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개별 주식 콜옵션을 직접 매도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종목 옵션을 활용하면서 프리미엄 수익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는 “개별 종목은 지수보다 변동성이 높아 동일한 만기 구조의 경우 프리미엄도 훨씬 크다”며 “올해 3월 기준 삼성전자 월간 옵션 프리미엄은 약 8.5%, SK하이닉스는 약 10%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전략을 조정하는 ‘액티브’ 운용도 차별점으로 꼽힌다. 정 본부장은 “‘액티브’라는 명칭처럼 옵션 매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한다는 점도 차별점”이라며 “변동성이 낮아지며 반도체 상승이 전망되는 국면에서는 옵션 매도를 줄이거나 중단해 주가 상승에 온전히 참여하고 횡보나 변동성이 높아지는 하락 국면에서는 매도 비중을 높여 프리미엄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상품 출시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 전망이 자리한다. 그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방

해야 하는 구조상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미국 운용사 라운드힐이 이달 초 상장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ETF는 2주 만에 순자산 1조2천억원을 돌파해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톱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투자 매력에 부각된다. 정 본부장은 “세금 측면에서도 국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비과세여서 분배금의 대부분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종합과세·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매달 현금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며 “매월 말 분배하는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와 함께 보유하면 한 달에 두 번 높은 비과세 비중의 분배금을 받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한국투자증권, IRP 가입자·적립금 급증

가입자 52만명, 적립금 8.8조
디지털 투자 환경 강화 등 요인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지난 1분기 기준 52만 3000여 명을 기록하며 증권업계 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상품 경쟁력과 수익률 차별화에 따른 고객 유입이 가속화된 결과다.

작년 말 47만 3000여 명이던 IRP 가입자는 불과 3개월 새 5만 1000여 명 늘어나며 50만 고지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IRP 적립금도 7조 4302억 원에서 1조 3833억 원 증가한 8조 8135억 원을 기록했다. 적립금 증가율은 18.6%로 전체 금융권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압도적인 수익률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디플트옵션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디플트옵션 ‘적극투자형 BF1’ 상



한국투자증권.

품은 8개 분기 연속 증권업계 수익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은 26.62%에 달한다.

투자 편의를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최근 대세가 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요를 감안하여 고객이 원하는 주기와 금액만큼 상장지수

펀드(ETF)를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는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으며, 이달 14일 기준 965개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문 기업들과 협업해 업계 최다 수준의 로보어드바이저 라인업도 구축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말 연금 관련 조직을 개편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형 연금 자산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해 고객의 노후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진 연금혁신본부장은 “퇴직연금 시장 환경이 기존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과 IRP 위주로 재편되면서 운용의 주체인 고객들에게 얼마만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며 “고객 니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 연금 관리 체계와 컨설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하나증권, IRP 수익률 26%로 업계 1위

1분기에만 적립금 17% 이상 증가

하나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보장형 수익률 부문에서 전체 증권사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하나증권의 개인형 IRP 1년 수익률은 25.73%로, 전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확정기여형(DC) 장기수익률 역시 5년 6.77%, 10년 6.11%를 기록하며 업계 1위에 올랐다.

하나증권의 IRP 적립금은 1분기에만 17% 이상 증가하며 8000억원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하나증권은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체계적인 연금 자산관리 시스템을 꼽았다.

/허정윤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 시스템을 전면 재구조화하고 고객의 연금 자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오프라인·비대면 고객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했다.

하나증권은 올해 상반기 연금펀드 성과 분석 프로세스 마련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AI 연금프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차민정 하나증권 연금전략실장은 “연금계좌는 실시간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자산관리로 연금 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에셋과 블록체인 협력

미래 금융 환경 변화 선제 대응

한화투자증권은 글로벌 금융 특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디지털에셋(Digital Asset Holdings LLC)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디지털에셋은 골드만삭스, 미국에탁결제원(DDCC), 결제 인프라 기관 유로클리어(Euroclear), 홍콩거래소(HKEX), HSBC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채택한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를 운영하고 있다.

‘캔톤 네트워크’는 유일한 금융 특화

개방형 블록체인으로 금융기관 간 자산 이동과 협력을 자유롭게 하는 상호운용성이 특징이다. 양사는 앞으로 다양한 금융 영역에서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 내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발 루즈(Yuval Rooz) 디지털에셋 최고경영자는 “강력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보유한 한국은 ‘캔톤 네트워크’ 확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화투자증권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오른쪽 두 번째)와 유발 루즈 디지털에셋 대표(오른쪽 세 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캔톤 네트워크’는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들이 검증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정은보, AOSEF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거래소 이사장)

아시아 지역 거래소들과 협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이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오세아니아거래소연맹(AOSEF) 연차총회 참석과 글로벌 로드쇼 개최 등을 위해 20일 출국했다.

AOSEF는 아시아 지역 거래소의 협력과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1982년 설립된 단체다. 현재 13개국의 총 17개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오는 22일 열리는 이번 연차총회에는 홍콩거래소와 일본거래소, 상해·선전거래소 등 아시아 주요 거래소 대표들이 자리해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과 거래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정 이사장은 다음날인 21일 홍콩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



으로 한국증시 글로벌 로드쇼도 개최할 예정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로드쇼는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 성과와 투자 매력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3일에는 중국 선전거래소를 방문해 리 지준 총경리와 함께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및 거래소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 현지에서 있는 한국 기술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아시아 주요 거래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